



일본 J.T.B. SHOW '98 개최

일본 망원경 및 쌍안경 전문전시회인 Japan Telescopes and Binoculars Show (J.T.B.SHOW '98)가 일본 망원경공업회(회장 小野茂夫)의 주최로 지난 6월 27일부터 양일간 도쿄도립산업무역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을 대표하는 망원경 쌍안경 메이커 및 미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외국메이커의 최첨단의 기술을 결집한 제품을 한곳에 모은 전시회로서 올해로 25회째를 맞았다.

올 봄은 2월 26일 남태평양에서 대서양에 걸친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또한 8월 22일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금환일식이 보여지며 이날 일본의 서일본방면에서는 부분일식이 보이는 등 금년도 천

문이벤트가 많아 천문에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류탐사자연관찰, 스포츠, 레저 오토캠핑 등이 성황을 이루므로써 관찰에 사용되는 쌍안경, 지상망원경이 매년 새롭게 종류도 증가해 용도에 대응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각종 천체망원경, 천문소프트, 냉각 CCD카메라, 천문도입기기 등 디지털 관계기재, 필드스코프, 쌍안경, 카메라 등의 신제품, 참고출품을 포함해 500여점이 전시되었다.

당시에 천체화가 제1인자인 岩崎—影선생의 '스페이스아트展-파트Ⅲ' 등의 작품전과 함께 '화성세계의 꿈'이라는 주제로 한 村山定男선생의 강연회도 행해졌으며

또한 천체 등 야생조류사진전도 동시에 행해졌다.

금년들어 처음하는 시연으로는 도심부에서는 드문 관망회를 6월 27일밤에 전시회장의 근처공원에서 개최했다.

주요 전시회 출품회사로는 旭광학공업, 宇治천체정기, 올림퍼스광학공업, 캐논, 갱코, 興和, 코스모오리진, 昭和기계제작소, 高橋제작소, 중앙광학공업, 토미, 니콘, 일본시이벨헤그나, 빅생, 빅토란, 富士사진光機, 三鷹光機미크인터내셔널, 미스디트 재팬, 미놀타, 일본野鳥會, 일본쌍안경공업회 등이다.

참고자료: 旬刊 일본광학산업신문
1998년 6월 6일자